■ 법률 칼럼

시민권 자녀나 배우자가 미군에 복무 중인 경우 밀입국 배우자나 부모의 영주권 신청

▲ 사진/편집=shutterstock/타운뉴스

이민이나 세관을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한 경우 현행 이민법하에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시민권자의 부모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많이 소개해드렸던 601A 면제를 통해서 밀입국의 불법성을 면제 받은 다음 한국에 나가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시민권자로 미군에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경우 미국 내에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를 법률 용어로 Place in Parole이라고 합니다.

모든 합법 입국자에게는 I-94라는 출입국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출입국 번호는 합법적 입국(Legal Entry)을 증명하는 중요한 번호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는 이 합법 입국만 증명되면 현재 서류미비(undocumented: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미국 내에서 시민권 배우자나 자녀의 이민 청원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입국자의 경우에는 이 I-94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601A 면제를 통해서 밀입국의 불법성을 면제(10년/3년 입국 금지의 면제) 받은 다음 한국으로 돌아가 대사관 인터뷰(Consular Process)를 통해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밀입국한 분들의 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자녀가 미군에 복무하고 있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명예 제대를 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그 배우자/자녀의 이민청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배우자/자녀 immediate family member)이 시민권자이고 미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것을 근거로 이민국에 Place in Parole을 신청하고 그것을 이민국이 승인을 해주게 되면 이민국이 꼭 미국에 새로 입국한 것처럼 새 I-94 입국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가지고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이민청원(Immigration Petition)을 통해서 한국으로 출국 없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취득할 수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교육

이제 11학년 차례다

▲ 하버드 대학 와이드너 도서관. 사진=shutterstock

대학들의 정시 지원 마감이 다가오고 있다. 마감일은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마감된다.

예를 들어 컬럼비아 대학은 1월 1일, MIT는 1월 6일, 예일 대학은 1월 2일, 워싱턴 유니버시티 세인트 루이스는 1월 4일 등 대부분 1월 초에 마감한다.

이 말은 '이제는 11학년 차례' 라는 뜻과 다름 없다. 11학년들은 지금 부족한 대학 준비 요소들을 보강해야 할 시간이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11학년들은 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 GPA 잘 받고 과목 잘 선택하기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학업 성적과 학생이 수강한 과목의 난이도, 그리고 대학 예비과정인 AP, IB, A 레벨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학업 성적과 학교에서 얼마나 도전적인 과목을 들었는가가 중요하다.

11학년 성적은 그 어느 학년보다 중요하다. 11학년 성적을 망쳤다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은 낮아진다.

■ 지원할 대학 리스트 만들기

누구나 지원하고 싶은 대학이 있다. 그 대학 리스트가 구체적인 학생이 있는가 하면 막연하게 '좋은 대학' '일류대학' 이라는 모호한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들도 많다.

11학년이라면 지원할 대학의 리스트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자신이 어느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한다.

■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하기

대학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 부모의 학비 부담 능력 여부다. 하버드, 예일 대학 등 미국의 최상위권 꿈의 대학에 합격을 해도 학비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림의 떡' 이다.

만일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학비 조달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짜야 한다. 이것도 역시 전략이다. 대학 리스트를 만드는 데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 재정 문제다.

■ 특별활동을 점검하기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 요소는 매우 중요해진다. 자신이 9학년부터 해 온 특별활동을 점검하라. 이것을 resume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학생의 장점으로 부각할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특별활동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11학년 2학기 때에도 꾸준히 해야 한다. 특히 방학 때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특별활동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